

2026 vol. 585 SPRING

RedCross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지사 편

7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희망을 심다
골목길 끝에서 만난 노란 조끼의 온기
인간 존엄을 향한 오래된 약속, 국제인도법

RC Q&A

국민이 묻고 적십자가 대답하다

Q1

**대한적십자사는
언제, 왜
만들어졌나요?**

A. 1905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흡수되었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적십자회'로 부활해 독립자금 모금과 간호사 양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Q2

**적십자 회비는
어디에
쓰이나요?**

A.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제징용·원폭·사할린 동포 지원, 국제인도법 교육·연구, 이산가족 지원, 재난 대비와 피해자 구호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됩니다.



Q3

**한 해 기부금은
얼마나 모이나요?**

A. 2025년 기준 일반회비 409억 원, 후원회비 595억 원, 기부금품 1,191억 원으로 총 2,19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국정감사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며, 자세한 내역은 적십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헌혈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헌혈 외에도 재난구호사업, 복지사업(위기가정·맞춤형·결연지원 등), 국제사업(해외재난구호·남북교류 등), 교육 및 연구(재난 복원력센터·안전지식 교육 등),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봉사원·청소년 조직 운영 등), 공공의료사업(거점병원 운영·지역특화 공공의료사업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5

**봉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함께 활동하고 싶다면 봉사회 또는 RCY(청소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단체·개인으로 나눔·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은 적십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봉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6

대한적십자사 활동과 RCY는 다른가요?

A.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재난구호 복지지원 국제협력등 인도주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라면, RCY(청소년적십자)는 청소년이 인도주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활동 내용은 유사하지만, 청소년이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가치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7

조끼 색깔이 다른 이유는?

A. 재난 현장에서 소속과 역할을 한눈에 구분하기 위해 조끼 색을 달리합니다. 흰색은 대한적십자사 직원, 노란색은 적십자 봉사원입니다. RCY 조끼는 파란색을 기본으로, 어린이는 노란색, 청소년은 초록색, 대학생은 회색, 지도자는 빨간색으로 구분됩니다.



Q8

적십자 표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도주의 표지로, 무력충돌과 재난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과 시설, 수송수단을 식별·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863년 제네바회의에서 처음 제안돼 1864년 제네바협약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흰 바탕의 붉은 십자'는 중립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이 제한됩니다.



Q9

세계 적십자사와 어떻게 협력하나요?

A.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재건복구로 국제적 연대와 책임을 이행합니다. 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추진하며, 국제회의의 참여를 통해 인도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복원력 구축을 위한 연구와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Q10

2025년 가장 값진 활동은?

A. 지난해 영남권 산불과 전국적인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속에서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호를 통해 42,085가구, 59,137명을 지원,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을 제공하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영남권 산불 성금 587억 원을 포함해 총 2,195억 원의 최대 재난성금이 모여, 재난 극복을 위한 연대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RC Q&A 02

국민이 묻고
적십자가 대답하다



방방곡곡 RC : 서울특별시지사 편 06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

RC 봉사회 : 구로지구협의회 편 10

골목길 끝에서 만난
노란 조끼의 온기



RC 리포트 12

7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희망을 심다



RC와 함께 : 소방청 14

재난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원팀



RC를 소개합니다 16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적십자 구호차량

RC 긴급 모금 캠페인 18

멈추지 않는 재난 앞에,
멈추지 않는 관심을 더해 주세요



RC 위기가정 돕기 캠페인 20

로한이네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주세요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2

더 큰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너스클럽 10억 클럽 출범

RC 후원금 리포트 24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일상 속 RC 26

봄이 오면 무릎부터 챙기세요

RC와 떠나는 여행 28

봄날, 서울에 스며들다



RC가 말하는 인도주의 30

전쟁에도 규칙은 있다,
국제인도법

RC 뉴스 32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소식

나눔이 희망입니다 40

나눔을 함께 하는 사람들

RC 참여 코너 42

대한적십자사 여기 있습니다!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홍국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여러분의 ‘적십자’를 들려주세요

〈나의 적십자 이야기〉 6월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 〈나의 적십자 이야기〉는 적십자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참여형 코너입니다. 봉사자, 후원자, 헌혈자, 수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우리가 실천한 작은 행동이 어떻게 누군가의 삶에 닿는지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큰 인도주의의 흐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사연(500자 내외)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참여 이메일** jykim3@enzaim.co.kr

대한적십자사의 2025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5 사업보고서〉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지난 한 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대한적십자사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직접 전합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2025년 한 해를 담은 이번 보고서에는 재난구호·복지, 혈액·의료, 국제·남북교류, 교육·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등 4개 분야의 활동 전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금 현황과 후원금 사용 내역을 회계결산 자료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십자 활동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방곡곡 RC

서울특별시지사 편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지사

재난 현장부터 골목길 일상 돌봄까지

1946년 첫 발을 내딛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어느새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품었습니다. 화재·수해·감염병 등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재난 현장으로, 홀몸 어르신의 식탁 옆으로, 새 가방이 없는 아이 곁으로 묵묵히 달려온 서울특별시지사. 1,0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나눔의 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방방곡곡 전국의 적십자를 소개합니다: 8도 권역별 적십자 이야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8개 권역의 대한적십자사 지사 이야기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각 권역의 지사가 저마다의 지역 특성에 맞춰 펼쳐온 인도주의 활동과 봉사원들의 헌신, 지역사회와 함께 써 내려가는 나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도에서 80년, 서울지사의 역사와 역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1905년 대한적십자사 창립을 기반으로 서울 지역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46년 1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1949년 9월 초대 지사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도 구호와 의료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는 피난민 구호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복지·보건 활동으로 확대하고 헌혈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70~90년대에는 봉사 조직과 청소년적십자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의료진 방역 물품 지원부터 취약계층 위생용품 배포, 자가격리자 비상식량 세트 지원, 생활치료센터 구호품 전달까지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2년 중부 집중호우 수해 구호와 이태원 사고 재난 심리회복 지원, 2025년 영남권 산불과 은평 수해 현장까지 재난이 터지는 곳마다 어김없이 달려갔습니다. 약 1,000만 명이 밀집한 이 도시 안에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 어르신, 한부모·조손가정, 사회적 고립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이 공존합니다. 서울지사는 마장동 사옥을 중심으로 서부·남부·남동·중앙·북부·서북봉사관 등 거점 시설을 운영하며 재난구호,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국민안전교육, 청소년 인도주의 교육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전화 02-2290-6600



서울 392개 동, 봉사원들이 만드는 따뜻한 동네

서울지사 봉사활동의 핵심에는 수천 명의 적십자봉사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427개 동 중 392개 동에 봉사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봉사원들은 매주 약 1,00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합니다. 결연 가구는 서울시 내 3,679가구로, 한부모가정·조손가정·홀몸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입니다. 여름에는 삼계탕과 열무김치, 겨울에는 김장과 연탄 나눔까지 이어갑니다. 센 불 앞에서 300인분이 넘는 삼계탕을 끓이며 등이 젖는 봉사원들의 땀이 서울지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동 적십자봉사회가 결성되었고, 강서·마포·송파·은평·용산·종로 등지에서도 새 봉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월례 '적십자 아카데미'는 체계적 봉사원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서울지사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재난 현장입니다. 2026년 1월 새벽,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인근 주민 약 250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지사는 즉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응급구호세트 140세트를 급파했습니다. 구호급식차량을 이재민 대피소인 구룡중학교에 투입해 5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담요·이재민 쉼터·마음구호키트 등 구호물자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현장과 대피소에는 재난심리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심리적 응급처치(PFA)와 재난심리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서울지사 재난대응봉사회는 매년 1박 2일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하며, 무선통신 장비 설치, 긴급구호 물품 전개, 이재민 쉼터 설치와 드론을 활용한 피해 현황 파악 방법도 연구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안전, 재난안전체험관

서울지사는 재난 대응을 넘어 예방 교육에도 힘을 쏟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체험관은 개관 이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VR 가상 재난 체험, 지진·화재 체험, 생존배낭 꾸리기, 완강기 비상탈출,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총 8개 관에서 이론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원들은 모두 응급처치 강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대상자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체험관 강사 서윤희 씨는 “재난 발생 시 80%의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행동하는 20%가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365일 빈자리 없는 밥상, 따스한채움터

서울지사가 자부심을 갖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2022년 5

월부터 위탁 운영 중인 무료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입니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65일 하루 평균 약 4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연간 14만 명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따스한채움터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서울지사는 매년 시무식 대신 이곳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엽니다. 봉사원과 임직원이 함께 떡국·너비아니전 등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약과·식혜·양말을 손에 쥐여줍니다. “이곳에 오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는 이용객의 말은 따스한채움터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종로구 중앙봉사관에 식생활 지원 특화 공간 ‘열린맛나눔터’도 개소해 도심권 나눔 활동의 거점을 넓혔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다

서울지사 활동의 가장 빛나는 단면은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나눔의 주체로 나서는 선순환입니다. 기부자 이우영(가명)

씨는 어린 시절 대한적십자사의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 뒤, 따스한채움터를 접하며 나눔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024년 매일 1만 원씩 모아 쌀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매일 2만 원씩 적립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새 책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에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은 나눔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개포동 재건마을에서도 희망풍차 결연사업으로 돌봄을 받아온 주민 50명이 각 1만 원씩 모아 희망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수 소유도 아너스클럽, 서울 30호 회원(전국 333호)으로 가입하며 인도주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사원을 키우고, 봉사원에게 배운다

서울지사는 봉사원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 봉사원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운동의 이해, 현장 행동요령, 심리적 응급처치(PFA) 등을 아우르는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월례 ‘적십자 아카데미’로 재직 봉사원의 역량 강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육 1층 명예의 전



당에는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153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45년간 5만 9,000시간 이상을 헌신한 봉사원도 있습니다. 김상준 봉사원은 “처음 도움을 받던 이웃의 환한 표정이 잊히지 않아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임영자 봉사원은 “배운 나눔이 나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쌓아온 헌신의 기록이 서울지사 인도주의 활동의 진짜 토대입니다.



RC 봉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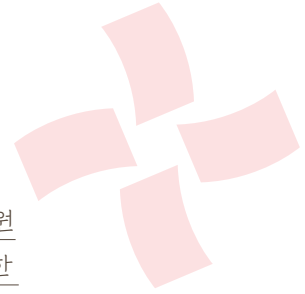
구로지구협의회 편

골목길 끝에서 만난 노란 조끼의 온기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간 희망풍차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 구로지구협의회가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밥상 앞에 나란히 앉은 봉사원들의 손길은 물품과 식사를 넘어, 따뜻한 연결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희망풍차 사업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됩니다. 위기가정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의 긴급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며, 봉사원이 복지 사각지대 2만 가구와 결연을 맺고 정기 방문을 통해 생활용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이어갑니다. 후원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필요에 맞춘 물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후원 문의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학교

서울 구로구 한 골목 안에 자리한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 센터는 2006년 지역 여성 단체 ‘구로여성회’가 뜻을 모아 세운 공간입니다. 이름에 ‘학교’가 붙어 있지만 정규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방과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밥을 먹고, 함께 뛰어노는 무료 공부방입니다.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기초수급자 자녀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독서, 언어교육, 악기수업,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듯한 환경 속에서도 센터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설 앞에 찾아온 노란 조끼의 온기

구로지구협의회는 1990년 설립 이후 구로구 16개 동에서 재해 구호, 반찬 배달, 이동 세탁 봉사 등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 결을 지켜온 적십자 봉사 조직입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희망풍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봉사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설맞이 생활용품과 식품을 직접 챙겨 센터를 찾았고,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봉사원들은 아이들 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나눔이 다시 나눔을 만드는 선순환

희망풍차 결연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봉사원들은 결연 가정 및 기관을 꾸준히 방문하며 정서적 지지까지 함께 제공하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을 이어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센터를 지탱해 온 구로푸른학교와 매주 반찬을 들고 골목길을 누비는 봉사원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로구의회 역시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로지구협의회는 앞으로도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과 가정이 일상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C 리포트

7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희망을 심다

RCY 식목활동 <희망 뿌리내리기>, 북한산에서 첫발을 내딛다

1953년 청소년적십자가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첫발을 내디딘 지 73년. 그 정신을 이어받은 RCY 단원들이 2026년 4월 4일, 북한산 자락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900그루의 나무, 북한산에 뿌리를 내리다

RCY의 효시인 식목활동과 식목일을 기념해 기획된 제1회 RCY 식목활동 <희망 뿌리내리기>가 (주)유신의 후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염광메디텍고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의 RCY 단원과 학생지도

자, 적십자방송국(RBS) 취재단 등 총 45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국수나무 480주, 진달래 320주, 때죽나무 100주 등 총 900주를 식재했습니다. 식목 장소는 불법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로 남아 있던 공터로,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협력해 탄소 흡수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 박민지 계장이 식재 장소와 사유를 설명했으며, 이레조경 김영길 대표가 나무 종류별 심는 깊이와 방법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단원들은 전문



가의 안내 아래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나무를 심었고, 박민지 계장은 “작년까지 불법 건축물이 있던 자리가 오늘 학생들의 손으로 자연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나무가 희망이 됩니다”

허혜숙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이날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은 나무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의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훗날 후배 단원들이 이 북한산에서 선배들이 심은 나무를 보며 희망 뿌리내리기의 정신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허 사무처장은 또한 국수나무와 때죽나무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종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 스스로 실천적 환경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뜻을 밝혔습니다.

“힘들지만 뿌듯해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따뜻한 날씨 속에 낫선 삼월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청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윤아·황혜준·임서윤 단원은 “처음엔 힘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것도 많아서 놀랐어요. 나중에 여기 다시 올 기회가 생기면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염광메디텍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성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그 덕분에 이곳이 이렇게 푸릇해진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보람차다”며 “마음을 다해 활동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RCY 식목행사



나무 한 그루에 담긴 RCY 73년의 역사

1953년 4월 5일, 부산에서 JRC(Junior Red Cross·소년적십자단) 단원 200여 명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천마산에 나무 1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창설된 JRC가 단원들을 조직해 처음으로 펼친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JRC는 이후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며,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았습니다.



RC와 함께 : 소방청

재난 현장을 지키는 튼튼한 원팀

구조와 구호가 맞물린 현장

지난 해 7월, 정부가 호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전국 소방력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경기 가평, 경남 산청, 충남 서산·당진 등 곳곳에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평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하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장비 9대와 소방인력 20명을 긴급 투입했고, 충북 청주 오송 현장

소방청과 적십자, 재난 현장의 동행

지난해 여름,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경기 가평, 경남 산청, 충남 서산·당진 등 전국 곳곳에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남겼습니다. 긴박한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급식·구호·심리 지원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에서는 인력 486명, 장비 81대가 밤샘 배수·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국 17개 지사에 긴급구호 준비령을 발령하며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가평에서는 연인원 3,5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소방대원과 군 장병 250명을 위해 삼계탕 250인분을 현장에서 직접 끓여 전달했습니다. 구조와 구호, 두 기관의 역할이 맞물리며 재난 현장의 빈틈을 함께 메웠습니다.



“적십자가 함께해 주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폭염 속 수해 현장에서 적십자의 지원은 단순한 물품 배급을 넘어, 구조 인력의 지친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현장에서 허정욱 대한적십자사 고문은 “특전사 요원들이랑 소방대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새벽 5시부터 나왔다”며 “밥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방서 김난희 서장은 “적십자의 ‘인도·박애·봉사’ 정신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해내는 소방과도 결이 닿아 있는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임원섭 소방정책과장 역시 “구조사업 경험이 많고 사회복지 전문성이 높은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국민안전과 구호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두 기관의 협력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적십자와 소방청, 재난 현장의 한 팀

소방청과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난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공조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적십자의 직원과 봉사원, 급식차와 세탁차 등 인적·물적 자원이 현장에 투입되며, 소방은 긴급구조와 인명 수색에 집중하고 적십자는 구호·급식·심리 회복으로 현장을 보완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적십자사는 소방청과 함께 각종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경북소방학교에서는 인도주의 교육을 이수한 신규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정기후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재난 현장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RC를 소개합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적십자 구호차량

국내 재난 현장에서 세계 재난지역까지 달리는
'움직이는 구호기지'

산불, 수해, 지진. 재난이 일상을 무너뜨리는 순간, 소방차 다음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차량입니다. 급식·세탁·샤워·회복지원·긴급재난대응·현혈 등으로 구성된 이 차량들은 이재민의 생존과 존엄을 동시에 지키는 '움직이는 구호기지'로, 국내를 넘어 세계 재난 현장까지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희망의 구호 기지

대한적십자사는 이동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이동샤워차량, 재난회복지원차량, 구호품수송차량, 현혈버스, 긴급재난대응차량 등 총 7종의 재난구호차량을 전국 각 지사에 분산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동급식차량(3.5톤)은 취반기와 자체 발전기를 갖춰 시간당 최대 300인분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제공할 수 있습니

다. 이동세탁차량(5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 2대씩 설치돼 의류는 물론 대형 침구류 세탁도 가능합니다. 샤워차량(9.5톤)은 6개의 독립 샤워 부스와 위생 키트로 기본적인 위생을 지원하며, 재난회복지원차량은 냉·난방기, 안마의자, 냉장고 등을 구비해 최대 16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재민 심리상담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각 지사 차량은 권역별 운영 체계를 통해 인접 지역 재난 발생 시 즉시 파견됩니다.

2025년 전국 산불, 보름간 10만 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재난구호차량의 진가는 2025년 3월 전국을 강타한 산불 재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직후 긴급구호활동에 돌입한 대한적십자사는 이튿날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피해지역에 급식차량을 즉각 투입했습니다. 산불이 전국으로 확산된 25일에는 하루 급식 인원이 11,750명으로 치솟았고, 전북 무주 산불이 더해진 27일에는 하루 17,23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4월 5일까지 누적 급식 인원은 102,255명을 넘어 2022년 강원·경북 산불 기록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이동세탁·샤워·재난회복지원차량 등 전 유형의 구호차량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직원과 봉사원 3,500명이 구호물자 115,231점을 지원했습니다.

폭염 속 잼버리부터 세계 재난지역까지

구호차량의 활약은 재난 현장을 넘어 대형 국제행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회복지원차량 4대와 40인승 냉방버스를 현장 5곳에 배치해 닷새간 총 2,733명에게 휴식 공간과 생수, 구호용품을 제공했습니다. 활약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구호차량 2대를 현지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2월에는 긴급구호차량 43대를 추가 지원해 피해가 극심한 10개 지역에 배분했습니다. 튀르키예 적신월사는 이번 지원으로 약 1,300만 명의 이재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진 발생 이후 159만 명에게 급식·구호물품을 제공하고 1,000채 규모의 컨테이너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등 복구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재난 현장을 달리던 적십자 구호차량은 이제 세계 곳곳의 이재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 인도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RC 긴급 모금 캠페인

멈추지 않는 재난 앞에, 멈추지 않는 관심을 더해 주세요

대전 공장화재 긴급구호와 중동 복합위기 긴급구호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산업 현장의 갑작스러운 화재, 전쟁의 포화 속에 무너지는 도시.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어느 재난 현장이든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전 공장화재 긴급구호



갑작스러운 불길, 74명의 사상자를 남기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야 했을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헬기까지 투입된 끝에 약 10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14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25명, 경상자 35명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던 근로자들에게 그날의 일터는 돌아올 수 없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실종자 소식까지, 현장을 지킨 적십자

대한적십자사는 사고 직후 이동급식차량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소방대원과 이재민 2,00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응급구호세트·생수·담요·하팩 등 구호물품 1,400여 개를 신속히 배부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한 전용 쉼터 120명분을 설치해 안전한 대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심리지원도 즉시 시작해 마지막 실종자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심리상담과 합동분향소 운영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후원하기 대전 공장화재 긴급구호 모금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902-638427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하나은행 628-910126-10305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동 복합위기 긴급구호



폭격이 앓아간 일상, 10만 명이 삶을 잃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테헤란과 인근 주요 지역에 분쟁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서가를, 아이의 신발 한 짝을, 평온했던 저녁 식탁을 단숨에 콘크리트 가루로 되돌려놓은 폭격은 순식간에 20여 개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반복되는 공습과 반격으로 분쟁은 이스라엘, 쿠웨이트, UAE 등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고, 3월 현재 사망자 926명, 부상자 6,186명, 이재민 약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시설 6,668곳이 파괴됐고 의료시설마저 기능을 잃어, 치료 가능한 부상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탈출할 때, 적십자는 사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란적십월사 10만 대응 인력이 잔해 속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고, 이스라엘 마겐다비드아돔은 포탄 속에서도 혈액을 모아 생명의 줄기를 잇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재난대응긴급기금을 배정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생명구호 활동을 펼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충돌 당사자 간 인도적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부상자의 상처를 봉합할 응급처치키트가 되고, 이재민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되며,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희망이 됩니다.

후원하기 중동 복합위기 긴급구호 모금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6-001-530539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RC 위기가정 돕기 캠페인

로한이네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주세요

닥터헬기로 이송될 만큼 위태로운 교통사고를 당한 9살
로한이. 사고 직전 갓 태어난 동생과 함께 행복한 네 가족을 꾸리려던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치료비 부담과 불안정한 생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로한이네 가족 곁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단 4일 만에 2천만 원, 감당할 수 없었던 치료비

2025년 1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9살 로한이가 주차 차량에 가려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차량 뒷바퀴에 약 15m를 끌려가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119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된 로한이는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서 장기 파열, 다리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 후 단 4일 만에 수술비만 2천만 원을 넘겼지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가족이 받은 보상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직전 둘째가 태어난 날, 행복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8일 전, 오랫동안 기다리던 둘째 딸 말리나가 태어났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로 막 이사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일상은 사고 한 번으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갓 출산한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으로 모유가 끊겼고, 말리나를 돌봐야 해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역 공장 일로 한 달 200만 원 남짓을 벌여 치료비, 월세, 분유값, 기저귀값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긴 수술의 시간을 넘어, 다시 일어난 로한이

길고 긴 입원과 재활의 시간 속에서 로한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으면서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8일, 허벅지와 종아리에 박혀 있던 큰 핀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로한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제 땀 수 있어요?”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성장기인 만큼 2년 후 양쪽 다리 길이 차이를 확인하는 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로한이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로한이는 건강하게 지내며, 언젠가 멋진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상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리나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 혼자서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분유와 기저귀, 식비와 공과금조차 버겁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후원금으로 로한이의 재활 치료비와 추후 검사비, 말리나의 육아비, 가족의 생계비와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한이가 꿈꾸는 요리사의 내일을 위해, 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을 위해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로한이네 후원 방법

보내주신 후원금은 로한이네 가족의 재활 치료비 및 향후 검사비, 생계비(식비·공과금·핸드폰 요금 등), 육아비(분유·기저귀·이유식 등), 주거비(월세 등)로 우선 지원되며, 이후 모인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들에게 지원됩니다.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002-719129 (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 성명 + 김로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더 큰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너스클럽 10억 클럽 출범

나눔의 뜻을 모은 고액기부자 모임,
‘10억 클럽’을 새로 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를 슬로건으로

2016년 출범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025년에는 10억 원 이상 초고액 기부자들
의 모임인 ‘10억 클럽’을 론칭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나눔의 기적을 만들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2016년 9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 모임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 기부한 개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1억 원 이상 납부를 약

정한 약정회원과 기부자가 제3자를 지정하는 지정회원 제로도 운영합니다. 2025년 현재 32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매년 아너스클럽 행사 초청, 비전 트립 및 해외 필드 트립, 해외 고액클럽 네트워크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억 클럽'이 출범하다

2025년 9월 25일,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9회 총회에서 10억 원 이상 초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이 공식 론칭됐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60여 명의 고액 기부자가 참석해 창립을 기념하고 향후 비전과 국내외 인도주의 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 1호 김거석, 2호 김종기, 3호 정기호, 4호 박흥석, 5호 박정부, 6호 홍라희 아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호 회원인 김거석 아너는 2024년 12월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이후 총 10억 원을 약정하며 10억 클럽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인천 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원에 기여를 이어온 그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한적십자사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의 기부는 당시 받았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정기호 아너는 2017·2018년 연속으로 회사 주식 총 2만 주를 기부하고 2019년 아너스클럽 116호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10억 클럽 3호 회원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광고에서는 내가 전문가지만 이웃을 돕는 일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전문가”라는 그의 말처럼, 기부의 계기와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나눔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10억 클럽은 세상을 바꾸는 큰마음의 이야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함께하는 방법

1 담당자와 1:1 맞춤 상담 진행

2 클럽 가입서 작성

3 재난구호·생계 지원·의료·교육 등
후원 분야 선택

4 후원금 납입

5 가입 완료 후 감사 선물 전달 및
회원 예우 제공

기부금은 긴급구호물품 지원, 임시대피소·의료서비스 제공 등 재난구호 활동에 쓰이며,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혹한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 의료비·치료물품 구매를 통한 의료 지원, 학용품·수업료 등 교육 지원으로도 이어집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감사 선물과 함께 다양한 회원 예우와 활동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입 문의 전화 02-3705-3744

이메일 csr@redcross.or.kr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2025년 재난구호 사업

재난의 일상화·대형화에 맞서 대한적십자사는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재난교육 확대,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위상 재정립



사회·자연재난 구호
13,151 가구



취약계층 지원
33,678 명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경쟁력 강화 및
법정의무교육 **680회**
25,750명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확대 및 체계적 대응체계

정서지원 **2,433건**

심리상담 **17,136건**



재난교육 확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재난구호 종사자
(적십자 봉사원·공무원·재난구호 종사자 등)
대상 참여형 재난교육 운영



시·군·구 및 소방서 합동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및 재난구호 강화

2024·2025년 재난교육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구호교육	6,370명	6,498명	128명 +2.0%
심리사회적지지교육	11,936명	12,737명	801명 +6.7%
재난구호 훈련	6,896명	7,659명	763명 +11.1%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성 강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상담
17,136 회 +34.6% ↗



마음구호 프로그램 및
PFA 교육을 통한
심리 상담 활동가 역량 강화

인프라 현대화 및 구호물자 적시 확보로 긴급재난대응체계 확립



정부 수탁 재해구호물자 제작
14,084 세트 +24.6% ↗



이재민 쉼터 기능 개선 및 특수차량
규격·배분기준 개선 위원회 운영



구호물자 비축 및
복합재난 대비 구호 역량 강화

2025년 주요 재난 구호활동

	활동인원	지원인원	물자지원
	1,132명	4,202명	7,198점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활동인원	지원인원	물자지원
	4,323명	113,938명	115,981점
전국 산불 긴급 구호 (3~4월)			
	활동인원	지원인원	물자지원
	5,976명	26,804명	130,868점
집중호우 긴급구호 및 복구활동(7~8월)			

일상 속 RC

봄이 오면 무릎부터 챙기세요

봄철, 무릎이 위험하다

매년 3~5월은 무릎 관련 정형외과 내원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봄철 야외 안전사고는 겨울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며, 특히 등산·조깅 등 야외 활동 중 무릎 부상이 전체 스포츠 손상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관절과 근육이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봄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상 특성도 한몫합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 관절 주변 조직이 충분히

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가 알려주는 무릎 건강 관리법

꽃샘추위가 겹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무릎 부상과 퇴행성 관절염 증상 악화 사례가 급증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시간 없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무릎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이완되지 않은 상태라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무릎 인대 염좌와 슬개골 주변 통증으로, 운동량이 적었던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에서 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허벅지 근육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장거리 등산이나 조깅에 나서면 무릎 관절이 하중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부상 위험이 한층 높아집니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근력 강화만으로도 상당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운동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증상을 잘 조절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증상 완화와 악화 예방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관절염 증상이 약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걷기,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무리가 적은 것부터 시작하고, 등산·쪼그려 앉기·딱딱한 신발 착용은 피해 주세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꾸준히 강화하면 무릎을 받쳐주는 힘이 생겨 일상 동작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루 10분, 집에서 시작하는 무릎 건강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의 다리 들어올리기,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등 세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다면 무릎 구부리기, 관절 가동 범위 운동, 탄력 밴드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 등 단계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이 알려주는 무릎 건강 운동 3가지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반대쪽 무릎을 세워 놓고, 운동할 다리는 쪽 편 채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 상태로 다리를 한 뼘 높이로 들어올려 5초간 유지 후 내립니다. 좌우 각 10회 반복



2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당겨 앉습니다. 발목 각도를 유지한 채 운동할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5~10초간 버팁니다. 좌우 각 10회 반복



3 의자 잡고 스쿼트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어깨너비로 섭니다.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허리를 세운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며 20~30도 천천히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3~5초 유지 후 일어섭니다. 10~15회 반복.

RC와 떠나는 여행

봄날, 서울에 스며들다

봄이다. 철 지난 겨울이 마지막 칼바람을 쥐어짜보아야, 어딘가에 잠복한 꽃샘추위가 불현듯 심술을 부려보아야 오는 봄을 막을 순 없다. 얼어붙었던 샘이 다시 대지를 적시고 형형색색의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땅은 1년 중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는다. 대한민국 여행의 심장인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강변엔 벚꽃이 흩날리고 응봉산은 개나리의 샛노란 물결로 뒤덮인다. 꽃이 질 무렵이면 궁궐에선 축제가 이어지고 도심 사찰의 단청 아래로는 연등이 매달린다. 이제 술술 기지개를 펴고 길 위에 설 시간이다.

여행작가 태원준

25년간 100개국 이상을 여행한 베테랑 여행자.
3년 동안 전국 161개 시군 모두를 여행하며
<대한민국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집필했다.
@spaceneedle_



주요장 설렁탕



참신화



북촌한옥마을



개화산 약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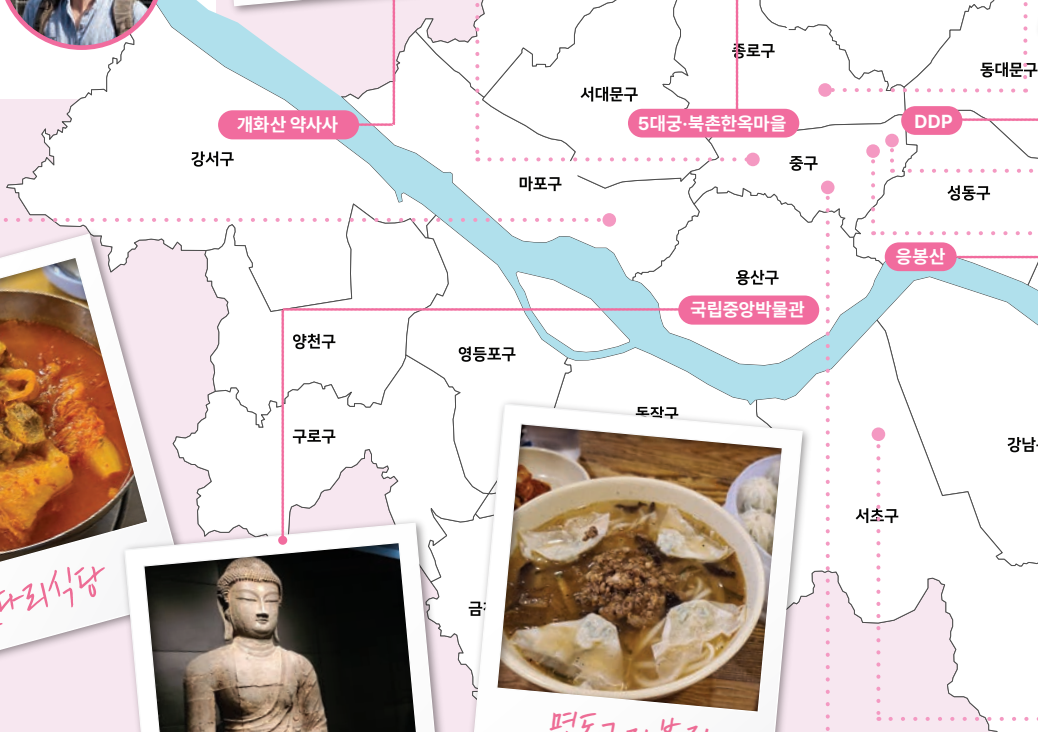
골다리식당



국립중앙박물관



명동교자본점



봄철 서울의 명소

궁궐과 꽃이 어우러진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꽃으로 시작해 축제로 깊어진다. 매년 봄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 다섯 궁궐에서 궁중문화축전이 열려 전통 공연과 체험 행사로 고궁에 생기를 더한다.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진 경복궁의 근정전은 여전히 웅장하고, 경회루와 향원정은 봄빛 속에서 한층 빛난다. 다섯 궁궐 가운데 유일한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특히 후원의 봄 풍경이 빼어나다. 궁궐 나들이를 마친 뒤에는 응봉산의 개나리 축제를 즐기거나, 약사사에서 연등이 밝혀낸 고즈넉한 풍경 속으로 걸음을 옮겨도 좋다.

문화와 예술로 이어지는 도심의 봄

봄의 서울은 자연과 역사에 더해 문화의 깊이를 품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대한 유물을 간직한 대표 공간으로, 특히 '사유의 방'은 고요한 울림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완성된 유선형 건축이 돋보이며, 낮과 밤이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한편 북촌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전통 주거지로, 조선시대 양반과 왕족이 머물던 곳이다. 현대적인 도심 속에서도 낮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밀집해 있어,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골목에서 완성되는 서울의 맛

서울의 깊이는 골목 어귀의 오래된 식당에서 완성된다. 종림장설렁탕의 뽀얀 국물 한 그릇은 이른 아침부터 속을 든든히 채워주고, 창신육회본점의 붉고 싱싱한 육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서울의 맛을 전한다. 1946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태극당의 단팥빵에는 세월의 결이 켜켜이 담겨 있다. 굴다리식당의 칼칼한 김치찌개와 명동교자 본점의 칼국수는 긴 줄마저 기꺼이 기다리게 만드는 서울의 명물이다. 서관면옥과 우래옥은 이북음식의 전통을 이어가며, 서울의 미식 지도를 한층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창신육회본점



우래옥



태극당



DDP



응봉산



서관면옥





RC가 말하는 인도주의

전쟁에도 규칙은 있다, 국제인도법

영화로 만나는 분쟁 속 인간 보호의 원칙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매년 '국제인도법시네마 토크'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시네마 토크에서 그동안 소개한 영화들을 통해 그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전쟁 속에서 탄생한 인류의 약속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무력충돌 시 적 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으로, 무력충돌법 또는 전쟁법으로도 불립니다.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방치되는 참상을 목격하고 구호단체 설립과 국제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이 씨앗이 되어 1863년 적십자운동이 탄생하고 이듬해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 1949년 4개의 협약으로 완성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칙이 지켜질 때,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화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보호 대상은 민간인과 부상자는 물론, 전쟁포로·억류자, 의료·종교 요원, 난민과 이산가족, 문화유산까지 아우릅니다. 무력충돌 당사자들은 이들을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와 전술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추천하는 국제인도법 관련 영화



고지전, The Front Line, 2011

정전 직전까지, 전쟁은 왜 멈추지 않는가?

정전협정 발효 직전 가상의 전선 '애록고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 존엄이 훼손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상자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들은 규칙 없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덩케르크 Dunkirk, 2017

혼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구분의 원칙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군인과 민간인의료선과 군사 선박이 뒤엉킨 덩케르크 해안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핵심인 '구분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과 부상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적십자 표장을 단 의료선박은 공격이 금지됩니다.



모리타니안, The Mauritanian, 2021

재판받을 권리, 그것조차 인도법이다

9·11 테러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모리타니아 청년이 적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14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네바협약 공통 3조가 금지하는 고문, 모욕적 처우, 재판 없는 구금이 현실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7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인도법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세미나,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네마 토크,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학술지 『인도법논총』 발간과 국제회의의 참가를 통해 최신 현안을 국내에 보급합니다.



시네마 토크



투명성·책임성·재무 건전성 평가 6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적십자사가 한국가이드스타 주관 2026 공익법인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획득했습니다. 평가는 결산 서류와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투명성·책임성·재무 효율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법인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등 회계 관리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국내 등록 공익법인 1만 7,262개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법인은 44개로 전체의 약 0.25% 수준입니다.



정동원 팬카페 '우주총동원', 설령탕 1만 8천여 개 기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정동원의 공식 팬카페 '우주총동원'이 동절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촌설령탕 제품 1만 8,300개를 1월 28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팬카페 회원들이 직접 제품을 구매·기부처를 논의해 마련한 자발적 나눔으로, 총 약 5,500만 원 상당입니다. 기부 물품은 경기 지역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독립유공자 후손, 서울 노숙인 무료급식시설 '따스한 채움터'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간다에 선진 혈액 시스템 구축

대한적십자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우간다 부소가 지역에 혈액원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통합적 혈액 수혈체계를 구축합니다. 부소가 지역은 혈액 관리 시설이 없어 만성적인 혈액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대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혈액원 설립, 전문인력 양성, 헌혈 촉진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1회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 개최

서울지사는 12월 10일 재난심리 전문가와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재난 초기 대응부터 장기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서울지사는 이를 계기로 서울시·정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심리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요리 멘토링

'국심동체' 서울지사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청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요리 멘토링 프로그램 '국심동체'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식·한식 전문 셰프와 제빵 기능장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청년들과 함께 조리·제빵 활동을 진행하며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고, 완성된 음식은 지역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됩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봉사관이 협력해 운영합니다.



구룡마을 화재 긴급 구호·심리지원 전개

서울지사는 1월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긴급 구호와 재난심리지원을 전개했습니다. 응급구호세트·담요·헬터·마음구호키트 등 필수 물품을 즉시 전달하고, 구호급식차량으로 간편식과 석식을 제공했습니다. 봉사원과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들은 대피소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RC 뉴스

부산지사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맛나눔’ 활동

부산지사 맛나눔터는 카페형 라운지와 조리·보관 설비를 갖춘 전문 공간으로, 1회 최대 200인분 조리가 가능합니다. 봉사원들이 체계적·위생적인 환경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3월에는 정월대보름 나물을 조리해 결연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유학생들도 영양 반찬 3종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39차 재난대응봉사회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사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제39차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 전국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첫날에는 지사별 재난통신망 설치 등 실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제13회 재난통신 경진대회’가 진행됐으며, 이튿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임원 및 봉사원 200여 명이 참석해 전국적인 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

부산지사는 2월 4일 BNK금융그룹·부산경찰청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 발생 시 부산경찰청이 피해자를 조기 발굴하고, 부산지사는 BNK금융그룹이 조성한 2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3월 31일 기준 16가구에 3,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구지사



(주)폴토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구 22호 가입

12월 3일, 닭고기 식품 전문기업 (주)폴토래(회장 이동환)가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구 22호로 가입했습니다. 폴토래는 2018년부터 무료급식과 유정란·삼계탕 후원,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1억 원은 국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보호, 재난구호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194명에게 장학금 1억 1천만 원 지원

12월 29일, 대구지사는 지역 학생 194명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1971년 ‘사랑의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으로 조성된 적십자 장학금은 현재까지 1만 7,932명에게 26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 시작된 희망천사학교 장학금은 매월 정기 후원금으로 조성돼 2,179명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44회 대학RCY 지도교수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대구지사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3개 대학 지도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대학적십자(RCY) 지도교수 전국협의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5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은 대학RCY는 현재 전국 265개 대학에서 약 5만 5천여 명이 활동하며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사



공항철도(주)의 따뜻한 나눔 실천, 학용품키트 전달식

공항철도(주)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학용품키트 250세트와 장학금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직접 포장한 학용품키트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황금도시락 지원

인천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황금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돌봄이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구입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지사는 단빛재단의 후원으로 관내 지역 아동센터 아동 30명에게 황금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영양밥세트 지원

인천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삼성 후원으로 인천 관내 취약계층 1,279세대에 '설맞이 영양밥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간편식으로 구성된 영양밥세트는 봉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명절 기간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식생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울산지사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울주군 어르신에 사랑의 떡국 나눔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는 12월 23일,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주군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00만 원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에서는 떡국용 떡·감·멸치·참기름 등으로 구성된 떡국 밀키트를 울주군 내 경로당 450개소에 전달하며 새해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용적십자봉사회, 장애인·노인 대상 아·미용 봉사

이용적십자봉사회는 2월 4일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고령 노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아·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아·미용 종사자로 구성된 이 봉사회는 매월 1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직접 찾아가며, 운영 중인 이발소와 미용실을 휴점하고 참여하는 봉사원도 있을 만큼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산동 위기가정 긴급지원금 전달 및 주거환경 개선

울산지사는 2월 26일 남구 삼산동의 위기가정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 286만 원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짐과 쓰레기로 생활환경이 열악했던 이 가정에 삼산동행정복지센터의 요청으로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삼산적십자봉사회와 연계해 이불 등 필수 생필품도 추가로 전달하며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대전·세종지사



설 명절 맞아 이산가족에 따뜻한 위로 전해

대전·세종지사는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을 방문해 명절 선물세트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설과 추석마다 미상봉 고령 이산가족을 찾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시무식 대신 봉사과 헌혈로 새해 시작

대전·세종지사는 1월 3일 시무식 대신 봉사활동과 헌혈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임직원들이 빵 나눔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 직접 만든 메론빵 200개를 소외계층에 전달했으며, 오후에는 단체 헌혈에 참여해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봉사과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며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전교통공사와 자립준비청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2월 29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세종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 임직원과 적십자봉사회 봉사원이 함께 손난로·라면·참치캔·컵밥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꾸러미를 직접 제작해 자립준비청년 3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지사



한호전과 함께하는 두바이 쫄떡 쿠키 만들기

2월 5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RCY 회원 6명과 함께 '두바이 쫄떡 쿠키' 700개를 제작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세 곳에 전달했습니다. 경기지사 남중부봉사관 빵나눔터에서 진행된 이번 제빵 봉사에는 경기지사 RCY본부장과 구호복지팀장도 함께하며 참여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주총동원' 정동원 공식팬카페와 함께 나누는 따뜻함

경기지사는 2월 10일 수원역 무료급식소 나눔터에서 취약계층 15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정동원 공식팬카페 '우주총동원'은 한촌 설렁탕 16,321팩과 기부금 1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팬카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빵과 양말을 노숙인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적십자 장학금 수여

경기지사는 3월 10일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10명에게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우신이앤씨(RCHC)의 5,000만 원 기부로 마련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2기를 맞이했으며, 지속 가능한 학업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및 고액기부자 감사패 전달

강원지사는 12월 1일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및 고액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액기부자인 미래해운 주식회사와 김화자 씨에게 도지사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RCY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12월 19일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서 RCY 단원과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40명이 참여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5가구에 직접 방문해 연탄 2,000장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레드산타와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12월 23일 강원지사는 빵나눔터에서 춘천 거주 다문화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으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충북지사



시민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 제천시협의회 떡국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시협의회는 2월 28일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적십자와 함께하는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봉사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떡국을 준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 확산의 장이 됐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대비는 빈틈없이! 충북지사 구호물자 정비 실시

충북지사는 2월 23일 봄철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구호물자 정비에 나섰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상식량세트를 전량 확인·교체하고, 이재민 쉼터 등 구호물자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정비 활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비로, 언제든지 시민 곁에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충북 RCY 해외봉사활동

충북RCY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청소년 멘토링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학교 시설 보수, 벽화 봉사, 응급처치·위생교육, K-POP 공연 및 전통놀이 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 환경 개선과 청소년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국제 봉사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 역량을 키웠습니다.

충남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원 캠코브러리 45호점 개소식

3월 4일 아산시 방축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 자산관리공사·아산시와 함께 '캠코브러리 45호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캠코브러리는 청소년의 학습문화 개선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으로, 현판 제막식과 미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규 상담활동가 20명 위촉

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3월 27일 신규 상담활동가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촉 후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재난 경험이 PTSD로 악화되지 않도록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상담 진행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충남RCY, 체험으로 배우는 나라사랑 캠프 개최

충남지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천안독립기념관에서 RCY 단원과 적십자봉사원 등 약 300명이 참여한 나라사랑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의 종 타종식, 통일 염원의 벽돌 조적식, 무궁화 기념 식수를 진행하며 통일·평화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전북지사



자연 보호·건강·나눔 실천, 제13회 희망풍차 나눔걷기 캠페인 개최

전북지사는 12월 10일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제13회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등 450명이 순창 강천산 산책로 5km를 걸으며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고, 1인당 2만 원의 기부금 전액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따뜻한 한 끼·따뜻한 마음, 겨울방학 '항금도시락' 지원 사업

전북지사는 겨울방학 돌봄 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항금도시락'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빛재단의 후원으로 1월 12일부터 3월 초까지 도내 아동 32명에게 점심 도시락이 지원됐으며, 봉사원들이 매일 직접 전달해 보호자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잇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자 손잡고, 22년째 저금통 들고 적십자를 찾는 가족

임규래 씨는 22년째 손자들과 함께 저금통에 모은 성금을 전북지사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7만4,300원과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부를 제안할 만큼 자랐습니다. 50년 넘게 봉사를 이어온 임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민포장을 수훈했습니다.

광주·전남지사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2026년도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지도교사 100여 명이 참석해 RCY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ICRC 한국사무소장의 특별강연으로 글로벌 인도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차기 임원진 구성과 2028년 총회 개최지도 이날 결정됐습니다.

삼성 후원 라오스 청소년
멘토링 해외봉사단 파견

광주·전남지사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라오스 방비엤에서 광주·전남·제주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 50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삼성의 후원 아래 학습환경 개선, 재난예방·위생교육, K-팝·태권도 문화교류를 진행하며 현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레드하모니 학교' 입학식 개최

광주·전남지사는 2월 28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20명과 봉사원 20명이 1:1 멘토-멘티로 매칭되어 정서적 지지와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AI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실생활 디지털 역량도 지원합니다. 6월까지 총 7회 운영됩니다.

경북지사

홀몸 어르신 마음 '다독다독',
건강까지 살피는 통합 돌봄 실시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1월 15일 영주 적십자병원에서 홀몸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도주의의 스타트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독다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진의 1:1 결과 설명과 봉사원의 이동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정서·문화·건강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모델을 실천했습니다.

국경 넘는 나눔, 경북RCY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 실시

경북 RCY 단원과 지도자 등 50명이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삼성의 후원으로 2012년부터 이어진 이번 봉사에서 단원들은 환경 개선, 응급처치 교육, K-팝·전통놀이 문화교류를 진행했으며, 아너스기업의 기부금으로 제작된 학용품 세트 50세트를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iM뱅크, 경북 재난
대응력 강화 위해 8,000만 원 기탁

iM뱅크는 2월 27일 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8,000만 원을 경북지사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재난구호차량·구호세트 제작과 산불 피해 이재민 회복 프로그램에 전액 투입됩니다. iM뱅크는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에도 성금과 쉼터 제작 기금을 기탁하고 직접 급식 봉사에 나서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함양·밀양 대형 산불 긴급구호 활동

함양군 마천면과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직원 및 봉사원 누적 142명을 투입해 총 4,600인분의 급식을 제공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172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재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나눔 김장 한마당'

경남지사는 12월 5일 봉사원·직원·기부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업과 기관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담근 김장 김치 약 5,000kg(520상자)은 경상남도 내 결연세대와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재난구호 지휘 차량 기증

경남지사는 1월 9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로부터 8,130여만 원 상당의 재난구호 지휘 차량(솔라티)을 기증받았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모금해 마련한 이 차량은 도내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즉각 대응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사



RCY 지도자 국외 직무 워크숍

제주지사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RCY 지도자 국외 직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도교사들은 2026학년도 RCY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베트남직접자 다낭지사와 국제 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민 올원(All One), 함께 여는 새해

농협 제주본부와 제주지사는 2월 9일 제주도 내 취약계층 400가구에 농협상품권과 설맞이 물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명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역 봉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정서적 나눔도 함께했습니다.



올 투게더(All Together) 학교 제주캠퍼스 졸업식

제주지사는 2월 24일 '올 투게더 학교' 제주캠퍼스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JDC 도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36가족 79명의 이주민(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해 문화·역사탐방, 법률·금융 교육, 공예·요리·언어 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적십자회비 31,456,104,663원

⊕ 정기후원 16,002,032,804원

*2025. 12. 1. ~ 2026. 2. 28.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5. 12. 1. ~ 2026. 2. 28.)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사단법인엔에이치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마켓인사이드 문자기부 주식회사 사팔도 주식회사 소담소담 (주)빙그레 베이비깁랑 (주)오투기 기아(주) 우리버스(주) 사회복지법인한마음국제복지재단 (주)영무건설 YG엔터테인먼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세계 스토어 진&뷰티 (주)바이오닷 경상북도청 서울우유 협동조합 김성주

5,000만 원 이상

롯데이네오스화학(주) 알레(alle) 변백현 울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주) 반짝 반짝 김보경 한국수출입은행 (주)데시존 비알코리아(주) 우리은행 희희 박흥석 iM뱅크 해피빈 기부금수납(경북) 한국오츠카제약(주) 해피빈모금(대구지사) (주)뉴트리 대우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한림공원 재단법인 비엔케이 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주)신한은행 연수구청지점

1,000만 원 이상

가수 정동원 팬클럽(우주총동원)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쌍방울 주식회사 해월당 주식회사 은도 사회복지법인 에스피씨행복한재단 한국남동발전(주) 동반상생처 제주 노형로타리 클럽 (주)국민은행서대문지점 주식회사 리뉴메디칼 태산글로벌 굿텐베스트자문 (사)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삼성전자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지역본부 우드팜 한국맥널티(주) 케이뷰티 착한가게7 농업회사법인(주)노다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식회사 제이플로엔터테인먼트 (주)씨엠비광주방송 임경하 우리물류포장 주식회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조의영 황홀스레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식회사 파라렐라 (주)비즈메디칼 하남반찬 금성이앤씨(주) 김문영 한국에너지공단 매니매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동원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지부 (주)제너시스비비큐 주식회사 홈스마일 병영새마을금고 어썸브레드 주식회사(Awesome Bread Co., Ltd.) 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 떡만드는앙드레 (주)농심 이정후 주식회사 비엑스바이오 가야김치 한국전기공사협회울산광역시회 주식회사 생각벌레 주식회사 신아코퍼레이션 안도연 주식회사모투스컴퍼니 삼성에스디아이(주)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법무법인베스트로홍성 한국자산관리공사

500만 원 이상

이미경 현대스틸파이프(주) (주)아침한우 삼성물산(주) 백수경 리나픽스튜디오 예산군 법륜사 이두연 데이오프데이(day off day) 희명약품(주) (주)굿모닝안전 용인계란농장 나주곰탕하얀집(운암2호점) (주)에이치앤쇼핑 브레드팩토리 빵야 한병규 박창선 (주)한라식품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민복기 사회복지선도원벤엘 (주)참한식품 재단법인농협재단 하남새마을금고 송재혁 아티블랑 김정구 강종연 도담회계법인 소쿠리커피 (주)엔피플 가수 유노윤호 팬클럽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새미래 (주)즐거움미래 현대건설(주) 파리바게뜨평택덕동점 주식회사이지세이브 공항철도 주식회사 울산축산업협동조합

100만원 이상

뉴오에이시스템주식회사 이종철 사회복지법인진암사회복지재단 황영웅 (주)더블유에이컴퍼니 다다름미술&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이스푸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미술식품 삼보모터스주식회사(SamboMotorsCo., Ltd.) 일곡88정형외과 (주)한영계기 사단법인 경상북도의회 사회공헌사업단 주식회사 네오프로틴 주식회사 꿀마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미그린버섯(주) 참좋은식품 주식회사 이은숙 사단법인 내포문화조각가협회 HD현대스포츠클럽 DIG에어가스 (주)아이비전 김도희 60계 화성사강점 유한회사 비타민G&P 한수만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주식회사 박종현 (주)페트로산업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더팬닝 황준범 라파티세리킴 지원 케미칼 주식회사 신정희 올탑스터디카페언양서부점 코아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뜰아래 주식회사 김태환 한국전력공사 (주)브로트아트 홍가네영양센터 파인이에스티 주식회사 NLCS제주국제학교 박정애 고영남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 올탑스터디카페울주점 조치현 사랑나눔파주재단 삼계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 이진 에스그린협동조합 신세계건설(주) 장철웅 (주)리젠시빌주택 (주)리채 중흥건설(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주)우미개발 (주)우미산업개발 우현건설 주식회사 (주)태호 (주)문장건설 (주)광신종합건설 골드클래스(주) (주)모아종합건설 모아건설산업(주) 대라주택건설(주) (주)대광건설 디에스종합건설(주) 고운주택(주) 이경화 송림침장 김상민 농협은행충남영암부 조영관 사조동아원(주)당진제분공장 재단법인한국우편사업진흥원 도르메진 이견열 대화제약(주) 대건메디피아(주) 부천상인초등학교 5학년 신선설농탕 중동점 김고운 옴니아이 권도윤 대저농업협동조합 (주)비케이비전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더조은관광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용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규석 북경반점 주식회사 지앤푸드 조지현 정영신 손대승 윤기현 김룡 대한주택관리사업협회광주시회 양성옥 임국봉 (주)삼성글로벌리서치 인력개발원 김강희 세무회계사무소 장원준 김민제 김학조 도중선 대흥면행정협의회 (사)대한불교보문조계종봉황사 양해린 김강민 김준우 조성경 (주)진산티앤씨 주식회사 일우 승원종합건설(주) 인벤테라건설 주식회사 고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 박정규 최향감 이진명 주식회사 한국플랜트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전북)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

김성주 김선희 홍라희 유종근 이세웅 김초원 김윤희 송광자 안재욱 이병헌 김은용 이수만 오길순 백낙환 박해진 이승엽 전중희 최창걸 허완구 김영자 한일량 이영건 이서례 홍경순 강옥채 최상준 김한 이선진 양문자 임형주 윤병철 남성희 김상태 김대곤 김문자 최용혁 김청옥 김인순 이동건 김창남 김경배 황규철 김정규 허규현 이경호 채종성 박희순 윤금영 최광주 박재규 김철 이재남 전병순 강석중 석승한 송길자 권오록 박재홍 이영철 신현국 이성구 이용찬 유봉기 김택남 광경부 김일량 광희순 김한성 김정수 김종기 홍종옥 김민호 한영수 이상록 전범수 임복희 장성훈 신동삼 박종근 송재승 김상호 신용구 김은재 정용 이현건 강신혁 이영해 김홍식 황인성 민경용 홍은영 최충경 이주영 고광만 김희성 강영신 김철용 구한조 황세열 장예순 이상락

이연구 손덕임 구분무 최해상 윤옥자 정석관 박연차 김상열 김태영 정기호 권혁홍 박홍석 박병선 김범수 오현봉 강원선 이태호 한주식 송준기 황광자 백인계 허정 이승연 김태연 김무임 남종현 서익수 박장배 김교숙 김경희 신숙경 오연서 최신원 서봉숙 최위승 강난파 허용수 박재연 문명재 이선희 신수봉 서정의 김형일 윤신일 홍성열 류시문 공봉애 박재규 박춘영 김영화 고진호 이희방 김대환 박윤미 임은영 정규진 임순이 김석주 성점화 변순자 김영식 김자경 이종욱 양창홍 한재승 한재현 김수관 도경희 이종호 조정애 신현봉 김진태 김영현 정채영 김봉옥 김재봉 정영화 강신애 이혜원 한광원 홍태희 문진석 강태선 김희월 윤미선 최영수 정성우 신정택 장대우 이승기 박순단 박명수 허인영 정요한 김홍수 정영진 김익기 주경숙 박승현 김남희 문은수 구정희 송경자 이현태 장영희 김경조 손창우 임경하 김우준 김애란 전종욱 박주환 유진종 이유순 황찬규 정진아 송옥희 오복진 서봉균 김철수 김병관 김홍국 김희철 장세욱 김선호 이강운 안응수 박재천 강중구 우현희 김미량 이종근 김영희 장오환 김효봉 장대식 정석현 이강원 박종태 정민혜 안춘엽 김윤철 신성민 윤진수 이정훈 양인준 강은희 조현숙 변정섭 정찬를 강영의 김영혜 황종현 현종협 조덕선 백낙서 이명희 최영아 서창희 정지선 조의영 이성운 김진구 송금순 이승운 구제길 이기영 홍오성 김거석 김호연 김미송은지 이정진 이정자 오연준 김난희 최경준 김미경 허연호 김화자 강소영 오나영 양한중 황영옥 박재상 송혜교 김희선 강슬기 김민정 이태용 박정부 양시백 서정길 목광원 이미옥 배인호 정필곤 허종태 김재왕 김명돌 권혁수 윤병욱 한호동 윤경림 이승환 금종윤 현정은 정혜신 김남연 전혜정 김진선 박순원 이후석 차영화 이원희 장상귀 강지현 한재승의 미래배우자 한재현의 미래배우자 한재승의 미래자녀 한재현의 미래자녀 신용일 김장연 서정길 최창권 강중구 이봉구 장상안 문현철 한미지

*(2026년 2월 28일 기준, 331명)

특별회비(2025. 12. 1. ~ 2026. 2. 28.)

1억 원 이상

(주)삼영피딩 (주)녹십자 서정길 장대우 우리은행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종은강안병원 종근당건강(주) 고려아연(주) iM뱅크 농협은행주식회사

5,000만 원 이상

기아자동차(주)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정용 재단법인태재연구재단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한국인삼공사 유진기업 (주) 유진투자증권(주)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주식회사 메세이상

1,000만 원 이상

김경희 S-OIL(주)온산공장 권중현 (사)성암복지문화재단 경기도 (주)디프로 매트 (주)반석기공 (주)창원중앙비에이엠센터 (주)서연이화울산공장 광복영농조합법인 (재)유한재단 (사)부산컨트리클럽 광주순환(주) (재)안동성소병원유지재단 (주)대풍산업 미추홀세무법인 농협은행(주)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김진선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동화건업(주) 김만석 김재봉 대한적십자사봉사회부산시협의회 박수영 대한불교조계종수원사 네오폴프연습장 동성환경산업주식회사 대한공업주식회사 라인테크닉스(주) 서울특별시 부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보림토건(주) 서울식품공업(주) 스틸사이클 주식회사 법무법인해인 사단법인 에스디윅 보경(경주) 삼두종합기술주식회사 부건에프엔비 선테스토크리아주식회사 인성코퍼레이션(주) 에이치설퍼(주)울산공장 인천광역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대전세종) 임철 이규천 영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울산탁구공동제조장 영성토건주식회사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전북도시가스(주) 자이언트슈핑앤트레이딩주식회사 전북은행 조현숙 화성금속공업(주) 한미반도체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채종성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두림에프에이 해내다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디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식회사무빙파워텍 한국인프라관리주식

회사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에이모스 주식회사 유니이앤티(UNI E&T CoLtd)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 충북개발공사 범양기업 이미옥 영진종합건설(주) 국민은행 인천공항지점 유수연 최경구 선경주택(주) 중앙레미콘(주) 청양봉사회 에스이메이커스 주식회사 (주)세계전람 재단법인하나금융나눔재단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금산지구협의회 농협생명보험(주) 폴토래(주) 우리은행 공학금융센터 (주)인성이엔지 강원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금진 (유)신희피엔에스 (주)파맥스해운항공 (주)장한종합건설 강중구 경남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파마리서치 경상북도개발공사 (주) 세경씨앤디 (주)한국종합건설 iM사회공헌재단 농협은행(주)충남영업부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문은수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 류전력소방 바디텍메드(주) 동화기업주식회사 안춘엽 사회복지법인에스오일울산복지재단 배인호 어프로티움 주식회사(APPROTUM) 신형건설(주) 사단법인 더파크복지재단 삼은건설 주식회사 부산청과(주) 장현봉 유진레저주식회사 이승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본사) 재단법인 목정문화재단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주식회사제키스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 회창물산(주) 하루도쉬지않는연세정형의과의원 주식회사동원종합건설 충청남도개발공사 케이케이(KK)주식회사 김화자 (주)큐미인터내셔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공사 디씨엠(주)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 김훈남 사회복지법인진암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가헌신도재단 호텔에이치디씨 주식회사 (주)동양 (재)운정국교교육재단 (주)평화발레로 동서식품(주) (주)광주은행

500만 원 이상

(주)우일공업 (주)메디베스트 광주광역시 HD현대중공업 (의)동강의료재단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주)경남은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크로시스 (주)선우테크앤캠 (주)비아이지퍼니처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주)태경하이테크 (사)대한곡물협회충청북도지 (주)건명테크윈 (주)신한은행계양구청지점 경상남도청 (주)지맥스 (주)넥스윌 (주)디앤오 (주)협성 강태익 (주)에스지비텍 (주)전북일보사 그린마트(중앙점) (주)삼일옥스틸 경상북도교육청 (주)자동차 (주)대청산업개발 고순희 (주)에이치티솔루션 (주)제니온주류 기독교대한감리회 좋은교회 대구바이오 논산시청 대양개발(주) 남성희 미수기획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라치오날코리아(주) 김청옥 다남의원 력키산업주식회사 김현태 농업회사법인 텃골(주) 동림건업(주) 박원대내과의원 더블머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구광역시청 박명수 늘푸른신용협동조합 디씨에이치(주) 김도훈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창회 서울동탄비뇨의학과 사랑을나누는사람들(사나사) 신진이앤씨(주) 소망치과 아이팜코리아 (주) 수원시 성동구협의회 봉사회인천지사협의회 안정훈 신기산업(주) 부인산업(주) 삼화석유(주) 부곡스텐레스(주) 양홍룡 반도공업(주) 송애정 이상은 정민혜 전라남도 이화기계(주) 전라북도 울산시의회 유창수산 제민신용협동조합 이혜정 전라남도도의회 오해님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주식회사 이화건영 주식회사 서원테크 참손푸드주식회사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 주식회사아이앤에스 학원건물 주식회사티케이 주식회사 아로마사이언스 해운약품(주) 홍성군청 큰숲한의원 파란손해사정(주) 주식회사케이엠엑스 청주시청 충북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식회사이에스트레이딩 조의영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주식회사파이버프로 황영웅 주식회사에스알씨(SRCInc.)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성북구협의회 (주)블루마운트테크놀로지 금북복지재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주)에이팜메디칼 대전광역시 김춘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시구협의회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주식회사 오씨메이커스 진주신경과 의원 세종새마을금고 도봉구협의회 (주)풍산울산산업장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청 케이에스케미칼(주) 충청남도청 (주)베페 (주)드림코리아 (주)앤유계양농협동조합 경림산업(주) 한영레미콘(주) 사단법인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재단법인 케이리그어시스트 (주)창해에탄을 인천도시가스(주) 주식회사 미래전람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를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반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RedCross 2025년 겨울호 독자 의견

가을호에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해온 이야기에 서 진정성과 지속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세대의 후원자와 봉사자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이수현 경기도 성남시

‘한 방울의 용기가 만드는 기적’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참여 과정과 성장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소개해 주세요.

— 최준혁 부산광역시 남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나눔’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하던 중, 직접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소에는 기부와 후원으로 마음을 전해왔지만, 기사 속 사례를 통해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일상 속에서 틈틈이 봉사를 실천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지민 서울시 강북구

‘누구나 진료센터’ 기사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뿐 아니라 봉사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적십자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참여가 이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홍수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을 지운 뒤,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
<RedCross> 3월호에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초성 힌트 **ㅈㄴㄱㅎ** (4글자)



후원자 코너



독자 참여

QUIZ

4명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

4명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정답을 맞추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결	연	재	난
봉	삼	계	탕
사	식	사	구
원	급	식	호

[방방곡곡 RC - 06쪽]

서울지사는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3,567가구와 **OO**을 맺고 생활용품 전달과 정기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RC - 06쪽]

서울지사 재난구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매주 약 1,000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하는 핵심 인력은 **OOO**입니다.

[RC 봉사회 - 12쪽]

구로지구협의회 봉사원들이 구로푸른학교 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OO**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RC와 함께 - 14쪽]

극한호우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소방대원과 군 장병 250명을 위해 **OOO** 250인분을 현장에서 직접 끓여 전달했습니다.

[RC를 소개합니다 - 16쪽]

대한적십자사 이동**OO**차량(3.5톤)은
취반기와 자체 발전기를 갖춰
시간당 최대 300인분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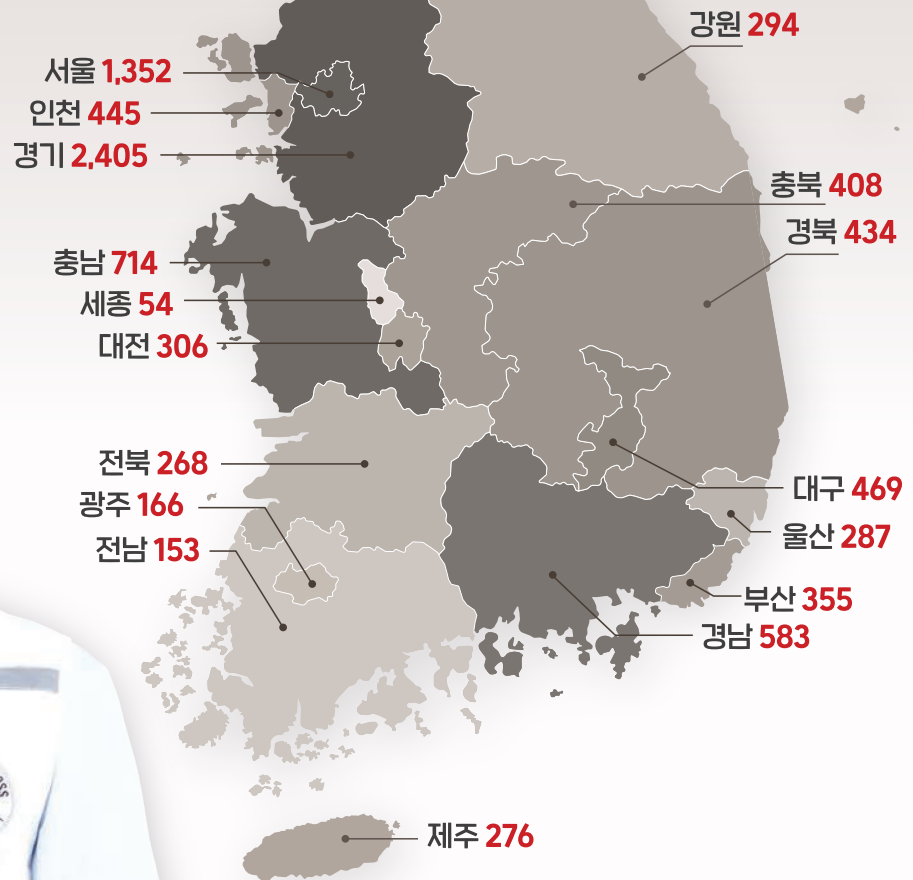
★★★★★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코너를 통해 2026년 <RedCross> 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좋은 기업은 가치를 남깁니다

전국 8,580개 기업 대표님이
대한적십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기가정을 돕는
썸썸이가 **바른기업**에
함께해주세요

월 20만원의 후원으로 썸썸이가 바른기업이 되어주시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명패를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기업들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배우 안재욱

대한적십자사